

사회신뢰가 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세대 간 갈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mpact of Social Trust on
Conflict Perception

- Focusing on the Intergenerational Conflicts -

양 영 권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 제1저자)

김 주 경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Abstract

Youngkwon Yang / Jukyong Kim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factors affecting perceptions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For the empirical analysis,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economic factors, social factors, political factors, and organizational conflict factors, with social trust used as a mediating variable. To test the hypotheses, a survey was distributed to adults aged 19 and over residing in Jeju Island, and 500 completed surveys were collect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empirical analysis revealed that economic factors and political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e the mediating variable of social trust. This indicates that a higher positive percept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leads to increased social trust within society. Additionally, as positive perceptions of social trust increase, perceptions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decrease.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addressing economic factors is crucial for reducing perceptions of intergenerational conflict and resolving generational tensions. It is important to expand economic support for the younger generation and diversify youth support policies to provide various benefits. While many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youth centers offering counseling and support related to housing, employment, and living conditions, insufficient promotion means that many young people are unaware of these services. Therefore, enhancing the promotion of youth support policies is also necessary. Additionally, given the intensifying ideological and political conflicts, political parties and organizations should work towards mutual respect and coexistence.

Keywords: Generation, intergenerational conflict, conflict perception, social trust, economic support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한국 인구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2020년 5,184만 명의 정점에 도달한 이후 자연 감소 단계에 진입하였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는 1960년에 각각 2.9%와 0.2%에 불과하였던 65세 이상 및 8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을 2020년에는 각각 15.7%와 3.6%로 상승시켰으며, 2070년에는 이 비율이 각각 46.4%와 21.8%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의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활동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피부양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노년부양 인구비는 1960년 5.3에서 2020년 21.8로 증가하였고, 2070년에 이르면 100.6 수준에 도달하여 경제활동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인류가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야 할 상황이다(통계개발원, 2022).

한편, 지금 한국 노인세대의 현실은 어떠한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아서 경제적인 측면 및 사회관계에서 극도로 취약하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노인세대는 과거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은 있지만 건강하지 못하고 사회관계에서는 소외되며, 자녀 양육·부모 부양으로 인해 정작 본인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으면서도 또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노인공경’이 대세였다면, 최근에는 연령주의·노인낙인 등 노인차별적인 문화도 강해지고 있다(이삼식 외, 2018).

반면, 한국 청년세대의 현실은 어떠한가? 저성장시대 또는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시대가 초래한 경제 불안정성과 무한 경쟁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 ‘88만 원 세대’로 표현되는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의 확대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청년세대 대부분은 총체적인 자산 형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의 비경제활동인구 통계를 보면, 20세부터 39세까지의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335만 명에서 365만 명 사이로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실업률 역시 2023년 3월 기준, 20세부터 29세까지가 7.2%로서 50세부터 59세까지의 1.7%, 60세 이상의 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서, 우울한 청년세대의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¹⁾(KOSIS, 2023).

이렇듯 인구고령화는 단순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인구고령화는, 바야흐로 한국 사회가 접어든 저성장시대와 맞물려 사회경제적 불평등, 경제 양극화, 탈산업사회로의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일자리·고용불안 및 공적연금 개혁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인구고령화가 사회적 갈등, 특히 세대 간 갈등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트렌드 분석결과, ‘고령화’와 ‘세대갈등’의 상관관계는 0.87로, 2008년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이슈 간의 연결고리가 더욱 강화되면서 높은 조응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황선재, 2022).

¹⁾ 중고령자의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은, 많은 고령층이 퇴직하더라도 적절한 공적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고 있어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 즉 한국의 빈약한 노후소득망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풀이된다(노대명 외, 2020).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 갈등 양상은 경제·정치·사회 모든 분야에서 표출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2010년부터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이라는 선정적인 제목과 내용의 언론기사²⁾가 봇물처럼 터져나와 세대 간 갈등 담론이 확대 재생산되었고, 또 고령층 유권자에 집중하는 정치적 구조로 인해 주택·연금·세금·일자리 등에서 청년세대에게 불리한 정책들이 선택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며(박종훈, 2013), 의료비, 일자리, 공적연금 및 복지지출 등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김희삼, 2015). 정치 분야에서는 일찌감치 한국 선거 정치에서의 연령 효과, 세대 효과는 모두 확인되었고(노환희 외, 2013), 정당들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서를 가진 세대를 동원하여 표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세대 간 갈등을 증폭하는 어휘와 주장을 남발하고 있으며(박길성, 2014), 정치적 갈등 성격이 강화되면서 특정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 등으로 인해 세대 간 경쟁의 양상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이재경·장지연, 2015). 사회 분야에서의 세대 갈등은 미시적 차원에서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최근에는 특히, ‘일·가정의 양립 이슈’가 직장 내에서의 세대 간 주요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즉, 40대 미만의 젊은 세대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일·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반면에, 40대 이상의 관리자는 젊은 세대의 육아휴직 사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이기적 행위로 비난하면서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조현정, 2015). 또한, 노인 관련 뉴스 댓글을 분석한 결과, 노인에 대해서 ‘퇴물·틀딱·좀비’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라져야 할 존재로 표현하거나, 이기적이고 반사회적인 이질적 집단으로 간주하는 등 적대적·거부적 혐오 표현을 통한 ‘노인혐오’ 현상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신경아·최윤형, 2020).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접근은, 특정 세대층만을 위한 지원·보조 등 시혜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전체의 행복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한다는 근본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회복과 신뢰 향상이 전제되어야 하며, 고용·복지·보건·주택·교통·젠더와 함께 매일매일 일상적 삶의 현장인 ‘지역’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세대 간 갈등의 예방과 관리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의 세대 간 갈등에 관한 연구들은 국가 전체의 사회경제적 자원의 세대 간 배분 수준에서의 연구에 치중되어 있고, 지방정부나 지역 차원에서의 실천적 고민을 담은 연구는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현재의 세대 간 갈등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합리적 대응방안 모색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실증적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세부적인 영향요인을 탐색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요인·사회적 요인·정치적 요인·직장 내 세대 간 갈등 경험이 지역주민의 세대 간

2) “정부가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생)의 은퇴 연착륙을 위한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 이들과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이른바 88만 원 세대 간에 한정된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서울경제신문, 2010.1.17. 「세대 간 ‘일자리 전쟁’ 시작됐다」/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1HW86HMDBZ>)

갈등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본다. 더불어, 사회신뢰 요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매개변수가 지역주민의 갈등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문헌분석이나 자료연구 등 '세대 통합'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주를 이루던 그동안의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지역 차원에서의 사회신뢰 요인의 매개효과를 포함한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세대와 세대 간 갈등

세대는 학술적 용어 이전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다. 세대(generation)에 대하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부모 일을 계승할 때까지의 30년 정도 되는 기간' 혹은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 전체'로 설명하고 있다. 세대는 각 시기별 주요한 역사적 경험에 따라 베이비 부머세대·민주화세대·386세대·88만원세대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각 나이와 생애 단계별로 2030세대·5060세대·실버세대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그 문화적 행태와 특성에 따라 신세대·디지털세대·MZ세대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박재홍, 2009).

'진짜 세대(실재 세대 혹은 세대 단위)'의 출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핵심요인은 '사회변동의 속도'이며, 이러한 사회변동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집단이 자신만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형성하고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해석은, 세계사적으로도 비할 데 없이 빠른 속도의 사회적 격변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 세대론의 유용성을 인정하게 한다(은석 외, 2018).

세대 간 갈등은 세대라는 사회 균열에 기초한 것으로, 역사적으로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세대 간 갈등은 사회의 발전과 성장의 부산물이며, 기성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다만, 각 세대는 구조적으로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겪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문화와 역사적 경험을 가지게 되며, 이는 결국 갈등의 잠재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이재경·장지연, 2015). 그리고, 경제적 고성장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시대에는 물질적 풍요의 증진에 대한 기대가 전후의 세대를 초월하여 공유될 수 있었지만, 구조적인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반드시 다음 세대가 현세대보다 풍요로울 것으로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세대 간 경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청년세대가 가질 수 있는 취업 기회는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인구의 노년세대 부양 부담이 커지는 지금의 한국 사회 현실에서는 세대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사회 각 부문에서 불거질 가

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대 간 갈등’에 대해서,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뿐 아니라 이러한 세대 간의 경제적 갈등을 포함한 개념’(김희삼, 2015)의 의미로 사용한다.

2. 세대 간 갈등의 원인에 관한 이론

1) 집단갈등 이론

집단 간의 기능적 관계에 근거한 이론으로, 집단들이 돈·정치적 권력·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자원의 실제 혹은 지각된 희소성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되는 경우, 제한된 자원으로 인하여 한 집단만이 승자가 되어 원하는 자원을 얻고 다른 집단은 자원을 얻지 못하는 제로섬(zero-sum) 상황에서는 집단 간에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1961년, 쉐리프와 그 동료들은 오클라호마 주립 공원의 청소년 캠프에서의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조사한 결과, 집단들이 경쟁적으로 상호 의존적일 때 제로섬(zero sum) 경쟁은 다른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고정관념을 촉발시킨다고 주장하였다(Dovidio et al., 2010, 재인용).

Campbell(1965)이 제안한 현실적 집단갈등 이론(realistic group conflict theory)에서도, 집단 간 갈등의 원천을 양립 불가능한 목표와 제한적인 자원에 대한 경쟁으로 본다(Campbell, 1965). 이 이론은, 집단 간 혐오가 어떻게 목표 갈등과 제한된 자원에 대한 경쟁을 일으키는지를 설명하고, 집단 간 혐오를 수반하는 외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감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이론에서 언급하는 현실적 갈등은 어디까지나 인지된 갈등이고, 집단 간의 현실적 목표에 대한 경쟁관계에서 발현되며,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경쟁에 바탕을 둔 인지된 현실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Stephan & Stephan, 1996; Hogg, 2013).

한편, 집단갈등 이론은 두 집단이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 간 협력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집단 간의 조화로운 관계가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시사해 준다(추병완, 2011).

2) 사회적 정체성 이론

사회적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은, 일상에서 발현하는 적대(hostility), 비관용(intolerance), 그리고 편견 등을 집단적인 인식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론으로서, 국가·인종·나이·성별 등 집단 간 사소한 차이에 의한 범주화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론이다(김금미·안상수, 2008).

Tajfel(1974)이 처음 주장하고 Tajfel & Turner(1979)에 의하여 발전된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서는, 세대 간 갈등은 인지적 노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생긴 사회적 유목화와 긍정적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동기에서 생긴 ‘내집단 선호(ingroup favoritism)’에 의해 비롯된 산물로 해

적되는데, Tajfel(1978)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 이상의 내집단(ingroups)으로 분류시키고, 그 집단 구성원의 자격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다른 집단과의 경계를 강화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특히 자신이 속한 내집단의 특성은 더욱 상세하게 묘사하는 반면, 자신이 속하지 않은 외집단(outgroup)의 속성은 가능한 단순하고 동질적으로(outgroup homogeneity)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원영희·한정란, 2019).

사회적 정체성은, 개인적 수준을 초월한 자기 영역의 확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자기 자신을 말하는 개인의 정체성을 넘어 사회적 단위까지 고려할 수 있는 탈개인화의 자기범주화가 바로 사회적 정체성이다. 다른 사람들과 유사해지려는 인간 본연의 기본적 욕구가 이러한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설명되기도 한다(Brewer, 1991).

사회적 정체성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세대에 따른 범주화는 본인이 속한 내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해 외집단과의 사회적 비교를 하게 되며, 이를 통해 내집단 구성원 간에는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차이가 드러난 외집단과는 갈등이 촉발되게 된다(Hogg et al, 2004).

사회적 정체성 이론은 갈등 형성의 근본 원인을 집단 범주화에 두고 있으므로, 재범주화, 탈범주화, 교차 범주화와 같은 범주화에 대한 유형분류 및 개입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 갈등 감소에 효과적임을 잘 보여준다.

3) 집단 간 접촉 이론

집단 간 접촉 이론은 집단 간 편견과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장 포괄적으로 연구되어 온 대표적인 이론적 틀 가운데 하나로서, 접촉은 다른 집단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타 집단 접촉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며, 공감과 역할채택 능력을 제고하여 줌으로써 편견과 갈등 감소에 기여한다고 본다(Allport, 1954). 이 이론을 세대 간 갈등에 적용하면, 세대 간의 단절과 배제는 갈등을 강화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고, 반면에 빈번한 접촉은 갈등을 해소하고 태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원영희·한정란, 2019).

집단 간 접촉 이론을 처음 제기한 올포트는, 집단 간 접촉 기회만 제공하는 것은 집단 간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집단 간 접촉의 긍정적 효과는 동등한 집단 지위, 공동 목표, 집단 간 협동, 권위·법 혹은 관습의 지원이라는 네 가지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을 때 발현한다고 보았다(Allport, 1954; 추병완, 2011). 즉, 모든 접촉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긍정적인 조건에서의 접촉은 집단 간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부정적인 접촉 경험은 오히려 편견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Amir, 1976). 또한, 접촉의 양보다도 접촉의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접촉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태도 변화의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다(한정란, 2000; Pinguart et al, 2000).

집단 간 접촉이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이유를 정리하자면(원영희·한정란, 2019),

① 집단 간 접촉이 외집단에 대한 학습을 촉진하고(Allport, 1954), ② 집단 간 접촉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던 외집단에 속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줄여주며(Stephan & Stephan, 1985), ③ 집단 간 접촉이 외집단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들의 관심사를 공감하게 하고(Stephan & Finlay, 1999), ④ 편견은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정보들에 근거하여 그 집단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일반화하거나 과잉 단순화한 결과이기 때문에 집단 간 접촉을 통한 편견의 감소는 집단 유목의 재개념화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Allport, 1954).

집단 간 접촉 이론은 편견을 감소시키기 위한 상황적 조건도 제시하고 있다. 디슨(Dixon)은 선행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여, 좋은 접촉을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였다(Dixon, Durrheim, & Tredoux, 2005). 즉, 접촉은 정기적이고 빈번해야 하고, 내집단과 외집단 성원의 비율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참된 만남의 잠재력을 가져야 하고, 여러 사회적 무대 및 상황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집단 간 경쟁이 없는 것이어야 하고, 관련된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어야만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3. 세대 간 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1) 객관적 갈등과 주관적 갈등인식

세대 간 갈등 연구와 관련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국민이나 지역주민의 주관적인 갈등인식 정도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세대 간 차이가 나는 세대 간 갈등의 객관적인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그 갈등인식이 낮은 경우에는, 세대 간 갈등으로 치달아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한편, 반대로 객관적으로는 세대 간 차이의 정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국민이나 지역주민이 주관적으로 그 차이에 대한 인식이나 갈등에 대한 인식이 높다면, 이는 정치·사회적인 갈등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박경숙 외,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갈등’이 아닌 바로 국민이나 지역주민의 ‘주관적인 갈등인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2) 사회적 요인

세대 간 갈등의 인식은 시대에 따라 사회적인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른 사회적 변화 그 자체로부터 갈등인식이 불거질 수도 있다.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정보화와 기술적 발전 역시 하나의 사회적 환경으로 작용하여, 사람들의 소통방식과 일하는 방식 등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있어 세대 간 단절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김명자 외, 2003), ‘세대 간 정보격차(information gap)’ 또는 ‘디지털 분리현상(digital divide)’이라고 하는 정보 이용과

관련한 불평등 역시 사회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박영균, 2009).

한국 사회는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 가장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또 그 변화 속도의 급격함으로 인해 세대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 및 일본·중국과 같은 동양의 나라들에 비해서도 세대 격차가 가장 현격하게 나타나는 나라로 지적된 바도 있다(Inglehart, 1997).

특히, 세대별 서로 다른 경험들로 인한 사회적·문화적 가치관과 규범의 변화는 세대 간 갈등인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자가 할 일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고, 아내가 할 일은 집 안에서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식의 남녀 성역할 분리 의식도 세대 간 갈등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실제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성평등에 대해 고정관념이 완화된다는 실태 조사 결과도 있다(여성가족부, 2022).³⁾

한편, 성평등 의식을 지지하는 개인은 대체로 사회적 공정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치를 가지고 관련 교육과 인식 확대에 관심을 가지며, 사회적 정책 및 제도의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세대 간 갈등인식이 낮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개인은 지방정부가 정치적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격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 운동과 활동에 대한 태도 역시 세대별로 크게 다를 수 있다. 아무래도 노년세대는 사회 변화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청년세대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전략과 방향을 선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활동에 대한 견해 차이 역시 세대 간 갈등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대 차이로 인한 대화의 내용적·형식적 단절은, 세대 간 갈등인식을 강화하는 사회적·문화적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세대 간 갈등인식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문화적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세대 간 문화적 격차 확대는 상호 의사소통을 원만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세대 간 반목은 상호 교류와 공동 활동 기피라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된다(박재홍, 2010).

3) 경제적 요인

갈등은 한정된 희소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대립적 상호작용이라는 본질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Gilbert & Monte, 1974), Turner(1975)는 한정된 자원을 각각의 세대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사회적 경쟁(social competition)’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년 연장에 따른 신규 취업 기회 감소 인식 등 세대 간 일자리 경쟁 구도, 연공급 등 연령대별 임금 격차, 노인복지 증대를 위한 증세 등 주로 자원·재산·노동시장과 관련된 영역으로서, 이러한 경제적 요인은 세대 간 갈등의 인식을 형성하

3) 성역할 인식과 관련한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60세 이상 남성 47.5% 여성 40.0%, 20대 남성 17.5% 여성 9.6%)’,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60세 이상 남성 44.6% 여성 46.4%, 20대 남성 9.0% 여성 4.4%)’로 성역할 분리의식에 대한 연령별·세대별 격차가 뚜렷이 확인된다.(여성가족부, 2022.4.19. 홈페이지 알림·소식/출처: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sn=710092)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 세대가 자신의 성장기 때 더 유리한 경제적 여건을 가졌다고 지금의 세대가 인식한다면, 이는 일종의 원한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청년들의 주택 구입 가능성 부족 문제도 있고, 특히 자기가 낸 연금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는 현재의 수급 구조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노년 부양비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김상노·조광희, 2022).

결국, 경제 분야의 핵심 이슈인 복지제도·조세제도의 바람직한 설계 방향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세대 간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세대 간의 갈등을 인식하는 정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경제적 영역은 다른 영역에 못지않게 개인들이 당사자 이해관계에 기초한 갈등인식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갈등 당사자들은 인지적 반응체계로서 갈등 프레임을 통해 문제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이다(심준섭·김지수, 2011).

4) 정치적 요인

정치는 국가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과정, 즉 가치의 권위적 배분 과정이며, 이러한 국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정치 이념적 갈등으로 분출될 수 있다(김대중 외, 2019).

자신이 성장하던 시기에 주류적으로 영향을 미치던 정치적 이념과 정치적 분위기는 세대 간 다른 관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연령대별로 정치적 의견과 가치관이 분열된다면, 세대 간 갈등이 초래될 수 있으며 세대 간 갈등인식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서는 세대 간 투표율의 차이나, 세대별 지지 정당 및 지지 후보의 차이가 주로 연구되었다. 청년세대와 노년세대는 오랫동안 진보·보수의 대립의 축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시기별·이슈별·젠더별로 청년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평가될 수도 있고, 오히려 보수화되었다고 평가될 수도 있지만, 노년세대의 보수적 성향은 일관된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강원택은 1987년 이후 기존의 지역 균열이 점차 약화되고, 이념과 세대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균열 구조가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강원택, 2005), 황아란은 민주화 성취 세대가 진보성향이 많고 2002년까지 지속성을 나타냈으나 민주화 성취 세대의 진보 비율이 제17대 대선에서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서 모든 정치 세대에 공통된 현상인 보수적 사회 분위기가 이념 성향에 미친 ‘기간 효과’를 주장하였으며(황아란, 2009), 박재홍은 세대 간 이념 갈등이 2002년 대선 전·후 극대화되었고 2004년 총선 이래 점차 완화되었지만 향후 조건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계기가 생기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박재홍, 2010).

또한, 정치적 정책 결정 영역에서 세대별 혜택의 공정성 훼손이 발견된다면, 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인식은 높아질 것이다. 교육기회, 취업기회, 사회적 관계를 규율하는 조건이 공정하게 적용되는가 여부 등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세대별로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윤민재·임정재, 2022). 그리

고,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계층이동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김나연, 2020)는 지방정부 정치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인식 및 세대 간 갈등인식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5) 조직 내 세대 간 갈등 경험 요인

MZ세대는 조직의 의무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조직 내 비합리적 관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만약 조직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구조라면, 다른 세대에 비해 빠르게 퇴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김정인, 2021), 이러한 세대 간 조직 내 갈등인식과 그 대응에 대한 차이는 이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일부 기성세대 직장인은 MZ세대 후배의 개인주의 성향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며, 위계 서열이 분명한 조직에서 조직구성원 간 수평적 대화와 소통은 아직도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설선미, 2022). 또한,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세대 간 차이를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세대 간 인식의 차이는 구성원들 간 회피 및 소통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정순돌 외, 2022).

직장 내에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면, 각 세대는 자신의 입장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다른 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조직 내에서의 의사소통과 편견의 문제, 부서 간 협력 저하 등은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고, 직장 내에서 세대 간 갈등을 경험한 개인은 이러한 갈등이 지역사회에서도 반복된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직장 내에서의 갈등 경험이 지역사회 수준의 세대 간 갈등으로 이행되거나, 혹은 그 반대로 지역사회 수준의 세대 간 갈등이 직장 내 세대 간 갈등으로 이행되는 구조가 작동될 수도 있을 것이며, 현대사회의 강한 확산력에 의해 세대 간 갈등 경험이 빠르게 공유되어 지역사회 내에서의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6) 사회신뢰 요인

신뢰란 타인의 행동이 조직을 비롯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정하며, 서로 간의 약속을 성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하며(Cummings & Bromiley, 1996), 이는 타인이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나에게 부정적인 위협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를 의미한다(Mayer, Davis & Schoorman, 1995). 신뢰는, 가장 작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에서부터 가장 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중요한 요인으로서, 신뢰회자가 높은 사회는 집단 간 협력을 유발하고 감시와 통제비용을 줄일 수 있다(Fukuyama, 1995).

한국사회의 신뢰와 관련하여, 영국의 싱크탱크 레카툼연구소는 '2023 세계번영지수'에서 한국 사회를 '저(低)신뢰 사회'로 진단했다. 구성원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나 규범·신뢰 등을 총

괄하는 사회적 자본지수에서 조사 대상 167개국 중 107위에 불과했던 것이다(서울경제신문, 2023). 그리고, 한국사회의 신뢰 수준에 대해 사회자본 이론을 통해 설명하면서, 한국인은 강한 가족주의의 영향으로 혈연집단 내 신뢰는 강하지만 혈연을 벗어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신뢰가 낮으며, 정부나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신뢰 역시 낮게 나타나는 등 저신뢰 사회라고 평가하는 연구결과들이 있다(이재혁, 2006; 한성열, 2005).

박병진(2007)은 신뢰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기준으로, 대인신뢰와 사회신뢰를 구분하였는데, 대인신뢰는 개인과 가까운 가족, 친지에서 시작하여 잘 알지 못하는 타인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신뢰라고 한다면, 사회신뢰는 대인신뢰나 특정 제도에 대한 신뢰를 넘어서 어떤 개인이 속한 사회 그 자체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인신뢰와 제도에 대한 신뢰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신뢰가 바로 사회신뢰라고 강조한다(박병진, 2007).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회신뢰'를 같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에 대해 갖는 집합적 태도로서의 일반화된 신뢰로 규정한다.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신뢰와 관련하여 주로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정부의 활동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대인신뢰와 사회신뢰 역시 정책수립과 집행 및 갈등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사인 간의 신뢰, 사회 자체에 대한 신뢰가 높으면 정부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거나 공적인 개입 없이 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Putnam, 1993; Brehm and Rahn, 1997; Zak & Knack, 2001), 개인의 기초적인 사회신뢰는 이보다 더욱 확장된 사회조직에 대한 신뢰까지 연결된다(Krishna, 2000). 즉, 개인의 사회적 신뢰는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이어지고 국가의 성장을 이루는데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lind, 2007; Job, 2005; Levi, 1996; Misztal, 2013; Nunkoo & Ramkissoon, 2012; Rothstein, 2011; Rothstein & Eek, 2009). 따라서 사회신뢰는 사회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활용된다(홍상우 외, 2023).

특히,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와 관련하여, 일반 시민들이 SNS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부정책에 관한 정보를 얻는 등의 시민활동을 활발하게 할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며, 평소에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자신의 거주 지역에 남들이 기피하는 비선호시설의 수용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등 일반적으로 남들이 꺼려하는 행위나 사고를 기꺼이 하려는 호혜적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황창호 외, 2018).

기본적으로 높은 신뢰를 가진 개인들은 종종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며, 지역사회에서 더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세대 간 갈등에 대한 비판적·부정적 인식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공정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는 주로 효과적인 지역정부 운영과 조화로운 지역사회 관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지역정부가 지역 내 세대 간 갈등을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지

역 내 다양한 연령대 간 사회적 연결과 대화가 더 활성화되어 있을 것임을 추정케 한다.

4. 선행연구 검토

1) 세대갈등 영향요인 관련 선행연구

〈표 1〉 세대갈등 영향요인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및 내용	연구방법
황선재(2022)	빅데이터 분석으로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간 핵심 쟁점을 확인, 국민이전계정 분석으로 생산연령인구층으로부터 고령층으로의 공공 및 민간 이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확인	뉴스 키워드 트렌드 및 상관관계 분석, 국민이전계정 분석
남궁은하(2021)	세대갈등과 연령대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세대갈등 완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구조화된 설문을 활용, 1:1 면접조사 방식
김미리·이선희·정순돌 (2020)	미디어 노인차별의 이원상호작용효과와 미디어 이용시간의 삼원상호작용효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단순 기술키 유의성 검증
이재경(2018)	언론보도를 통해 본 세대갈등의 양상을 분석하고, 원인과 대안을 제시	언론보도 분석, 자료연구
정순돌·정주희·김미리 (2016)	각 집단의 세대 간 갈등인식의 차이 및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ANOVA와 다중회귀분석
이수연·최인희·김인순·조은미(2010)	세대갈등 현황, 세대별 세대갈등 경험 및 인식 비교 및 영향요인 분석 등	문헌연구·설문조사·심층 면접·전문가 자문회의

세대 간 갈등이나 그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형편이다.

남궁은하(2021)의 연구에서는, 세대갈등 영역 중 노인인구의 증가를 젊은 층의 부양부담 증가로 생각하는 응답이 전체의 82.1%나 차지하고, 노인인구(고령 근로자) 증가로 인해 젊은 층의 일자리 부족, 직장에서의 업무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각각 50% 이상으로 나타나, 앞으로 노인인구(고령 근로자)가 증가할수록 우리 사회의 세대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고령층의 전문성과 숙련 기술을 젊은 층에 전수하고, 자산을 공유할 수 있는 세대 간 상호 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개발, 다양한 홍보 사업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중·노년기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지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미리 외(2020)의 연구는, 연령주의와 세대 간 갈등인식 간의 관계에서 미디어 노인차별의 이원상호작용효과와 미디어 이용시간의 삼원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연령주의는 세대 간 갈등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노인 개인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노인집단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규정하는 편견 및 선입견을 통해 세

대갈등 역시 증폭될 여지가 있고, 노인차별 영상 등을 미디어에서 많이 접할수록 세대 간 갈등인식의 관계가 증폭되며, 미디어에서 노인차별적인 모습을 많이 접하는 사람일수록 연령주의가 세대 간 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되어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이재경(2018)의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온라인 포털의 언론 기사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경제 45건, 사회·문화 36건, 정치 34건, 가족 22건으로 경제분야에서 세대 간 갈등이 많이 나타나며, 경제적 세대갈등의 원인으로서 렌트사회의 도래와 기성세대의 렌트추구, 그리고 세대편향적 정책을 지목하였다.

정순돌 외(2016)의 연구는, 연령주의와 연령통합 인식이 세대 간 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령집단별로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령통합의 관점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연령에 의한 차별과 연령을 구분한 정책들이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세대 간 갈등인식을 더 심각하게 인식함을 확인하고, 세대 간 인식하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연령주의 수준을 낮추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수연 외(2010)의 연구에서는, 노인이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화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질수록 세대갈등을 더 인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국 자녀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집단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적 지원 및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다른 세대에 대한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다.

2) 사회신뢰 매개효과 관련 선행연구

〈표 2〉 사회신뢰 매개효과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및 내용	연구방법
김호균(2007)	공정성을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의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공정성이 조직신뢰를 매개하여 조직시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구조방정식모형
정선영 외(2015)	개인의 가치관과 정치적 신뢰수준의 관계에서 사회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	상관관계분석과 ANOVA 실시
최동주·이묘숙 (2016)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범죄요인이 대인신뢰요인에 의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측정모형분석
임동진·윤수재 (2016)	갈등원인과 갈등수준 간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신뢰요인과 절차요인이 갈등수준을 증폭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	갈등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경로분석
임동진·박관태 (2017)	공정성과 사회갈등에 관련한 연구에서 공정성과 신뢰가 매개변수를 통해 사회갈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	구조방정식모형 및 확인적 요인분석
이지은(2020)	지역사회에 대한 위협인식이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과 관련하여 신뢰의 매개효과 확인	단계적 회귀분석, Sobel 검정

김호균(2007)은,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해 산출한 결과물에 의해, 배분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

은 조직신뢰를 매개변수로 하여 조직시민행동 변수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를 구체화하는 경우 상호작용 공정성이 배분공정성에 비해 이타주의, 시민의식, 양심 등 3가지 하위구성개념 변수에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분석하였다.

정선영 외(2015)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가치관과 정치적 신뢰수준의 관계에서 사회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능력주의 가치관이 정치적 신뢰 수준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있어 사회적 신뢰 수준의 매개 역할은 미미함을 확인하였다.

최동주·이묘숙(2016)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수 간 대인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대인신뢰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임동진·윤수재(2016)의 연구에서는, 갈등핵심요인 보다는 신뢰부족 및 절차미흡과 같은 매개요인이 공공갈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임동진·박관태(2017)의 연구에서는, 기관신뢰가 높아질수록 사회갈등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분석하였다.

이지은(2020)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위협인식이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분석하며, 사회적 신뢰를 매개요인으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매개변수인 사회적 신뢰는 위협인식과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고, 정주의사와는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양자를 매개하였다.

3) 신뢰와 갈등과의 관계 선행연구

국외 많은 학자가 갈등해결에 있어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다(Allen, 2001; Brown & Ashman, 1996; Larson, 1997; Pruitt & Carnevale, 1993; Rothbart & Hallmark, 1988; Tam, Hewstone, Kenworthy, & Cairns, 2009). 이 연구 결과들이 알려주는 내용은, 신뢰의 축적이 집단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전체 사회의 공존을 유지하는 것에 필요하며, 신뢰는 갈등 예방 효과와 갈등 발생 시 원만하게 해결하게 해주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갈등 당사자 간 신뢰부족은 갈등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한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매개역할을 한다(Parkhe, 1998). 또한, 당사자 간 신뢰수준이 낮을수록 갈등해결이 더더욱 어려워지고(Kumar, 1996; Doz & Hamel, 1998),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의 대부분은 바로 갈등 당사자 간 극단적인 불신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Pruitt & Olczak, 1995).

신뢰와 갈등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연구한 국내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상필(2000)은, 1993년 한약분쟁 조정 사례연구를 통해, 신뢰는 갈등당사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상호존중, 상호의존을 증대하기 때문에 분쟁의 조정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한 분쟁이 격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김강민(2011)은, 신뢰성이 갈등민주주의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일반 신뢰는 갈등해소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부의 영향은 직접적으로는 미치지 못하고 간접적으

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 하였다. 일반 대중에 대한 신뢰가 갈등해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연구결과이다.

김재신(2011)은, 국민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는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가 우리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및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공공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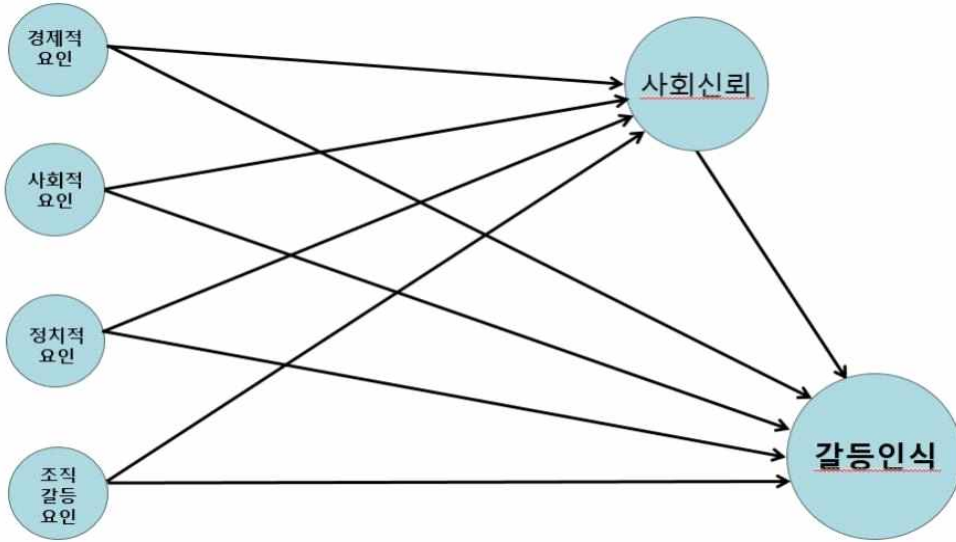
김태준(2014)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신뢰회복의 문제를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와 극복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는데,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인식하는 가치관을 수용할 때 서로의 신뢰수준은 높아지고 갈등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윤경(2020)은, 사회신뢰와 공적신뢰는 사회통합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타인에 대한 신뢰는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한국에서 신뢰는 가족, 친구 등 동질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생성되는 연대감과 일체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타인 특히 낯선 집단에 대한 신뢰감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Ⅲ. 연구의 설계

1. 연구분석 모형과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치적 요인, 조직갈등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자본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사회신뢰 요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각각의 변수들이 '갈등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독립변수 4개 요인이 사회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종속변수인 갈등인식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하였다. 또한 매개변수인 사회신뢰가 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매개효과도 검증하였다. 이상의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분석 모형

본 연구는 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분석 하기 위해 9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설1〉 경제적 요인은 사회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사회적 요인은 사회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정치적 요인은 사회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4〉 조직갈등 요인은 사회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5〉 사회신뢰는 갈등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6〉 경제적 요인은 갈등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7〉 사회적 요인은 갈등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8〉 정치적 요인은 갈등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9〉 조직갈등 요인은 갈등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연구방법론으로는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활용하였으며, 각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통계 프로그램은 AMOS 24와 SPSS 25를 사용하였다.

2. 조사대상 및 표본 특성

본 연구는 2021년 10월 20일에서 2021년 10월 28일까지 약 9일에 걸쳐 일반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전문리서치 기관에 의뢰를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방법은 인터넷 설

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제주도민 19세 이상 성인 남·여를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여 500부를 연구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가 256명(51.2%)이며 여성 응답자가 244명(48.8%)으로 조사되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9세가 88명(17.6%), 30~39세가 84명(16.8%)으로 가장 적었으며, 40~49세가 118명(23.6%)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50~59세가 121명(24.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0~69세는 89명(17.8%)으로 나타났다. 학력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학교 졸업 이하가 6명(1.2%)으로 가장 적었으며,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79명(15.8%)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대학교 졸업(재학/중퇴/전문대 포함) 364명(72.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재학/졸업) 이상은 51명(10.2%)으로 나타났다.

〈표 3〉 표본의 특성

(N=500)

구분		사례수(%)	구분		사례수(%)
성별	남성	256(51.2)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6(1.2)
	여성	244(48.8)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79(15.8)
연령	20~29세	88(17.6)		대학교 졸업 (재학/중퇴/전문대 포함)	364(72.8)
	30~39세	84(16.8)		대학원(재학/졸업) 이상	51(10.2)
	40~49세	118(23.6)			
	50~59세	121(24.2)			
	60~69세	89(17.8)			

3. 변수의 측정도구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변수별 측정도구는 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 각 항목마다 독립변수인 '경제적 요인' 3 문항, '사회적 요인' 3 문항, '정치적 요인' 3 문항, '조직 내 세대갈등 요인' 3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매개변수인 '사회신뢰 요인'도 3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제주도 세대 갈등 요인'도 역시 3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수별 구체적인 측정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변수 및 측정항목

구분	요인	측정항목
독립 변수	경제적 요인 (3문항)	1. 나는 대학등록금의 장학금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2. 나는 노년층 복지향상을 위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3. 나는 대북경제지원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
	사회적 요인 (3문항)	1. 여성이 결혼 이후 직장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2. 남성이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3. 사회공헌이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나 자원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적 요인 (3문항)	1. 제주도 환경보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2. 제주도 환경보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3. 현재 제주도의 정치에 대해 만족한다.
	조직 내 세대갈등 요인 (3문항)	1. 조직 내에서 타 세대직원 간 일과 관련된 의견의 불일치가 자주 일어난다. 2. 조직 내에서 타 세대직원과의 관계로 인해 자주 긴장을 느낀다. 3. 조직 내에서 일 이외의 다른 이유로 인해 타 세대직원과 마찰을 자주 경험한다.
매개 변수	제주도 사회에 대한 신뢰 요인 (3문항)	1. 제주도 사회에 대해 신뢰한다. 2. 제주도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3. 제주도 사회가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종속 변수	제주도 내 세대 갈등에 대한 인식 (3문항)	1. 제주도는 세대 간 갈등이 높다. 2. 제주도는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제주도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도청, 제주도, 서귀포시 등)는 노력해야 한다.

IV. 실증분석 결과

1.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본 연구의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해 신뢰도 검증 및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모형의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내적 신뢰도 검사결과 Cronbach' α 값이 모든 변수에서 0.7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구성개념의 AVE 제공근 값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신뢰도 및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 변수	항목	요인 적재량	표준오차 (S.E)	CR(t)	Cronbach's α	AVE
갈등 인식	갈등인식3	1.000			0.821	0.655
	갈등인식2	1.361	0.087	15.673		
	갈등인식1	1.069	0.007	15.176		
경제 요인	경제요인3	1.000			0.725	0.476
	경제요인2	1.008	0.098	10.284		
	경제요인1	1.337	0.130	10.290		
사회 요인	사회요인3	1.000			0.747	0.554
	사회요인2	2.120	0.232	9.133		
	사회요인1	1.824	0.193	9.441		
정치 요인	정치요인3	1.000			0.845	0.689
	정치요인2	1.744	0.119	14.611		
	정치요인1	1.654	0.113	14.617		
조직 내 갈등 요인	조직내 갈등요인3	1.000			0.880	0.710
	조직내 갈등요인2	1.041	0.049	21.146		
	조직내 갈등요인1	0.989	0.048	20.518		

사회 신뢰 요인	사회신뢰요인3	1.000			0.816	0.601
	사회신뢰요인2	1.082	0.064	16.940		
	사회신뢰요인1	0.865	0.060	14.311		

본 연구의 모형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절대적합도와 증분적합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절대적합도 χ^2 은 416.373, GFI는 0.915, AGFI는 0.879, RMR는 0.052, RMSEA는 0.070으로 모형 적합도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증분산적합지수 결과를 살펴보면, NFI는 0.904, TLI는 0.910, IFI는 0.930, CFI는 0.929로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여 본 연구의 모형과 측정변수들이 구조방정식 실증분석을 위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모형	절대적합도					증분적합도			
	χ^2	GFI	AGFI	RMR	RMSEA	NFI	TLI	IFI	CFI
기본 모형	416.373	0.915	0.879	0.052	0.070	0.904	0.910	0.930	0.929
기준치		>0.9	>0.85	<0.05	<0.08	>0.9	>0.9	>0.9	>0.9

2. 가설 검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실증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경제적 요인과 사회신뢰 요인과의 가설 검증 결과 경로계수는 0.131이고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두 번째 〈가설 2〉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요인과 사회신뢰와의 관계에서 경로계수는 -0.004로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은 기각되었다.

세 번째 〈가설 3〉의 경우 정치적 요인과 사회신뢰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경로계수는 0.452로 나타났으며,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의 표준화 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사회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면서 유의미한 값은 정치적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네 번째, 조직 내 갈등요인과 사회신뢰 요인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는 -0.052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지는 못하여 〈가설 4〉는 기각되었다.

다섯 번째, 매개변수인 사회신뢰 요인과 종속변수인 갈등인식 요인 간의 결과를 살펴보면 경로계수는 -0.183이고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신뢰가 높아질수록 갈등인식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신뢰 요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따라서 〈가설 5〉는 채택되었다.

여섯 번째, 독립변수인 경제적 요인과 갈등인식 요인 간의 직접적인 경로를 분석해 본 결과 경로계수는 0.117이고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이는 세금부과 등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수록 세대 간 갈등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설 6>은 채택되었다.

일곱 번째, 사회적 요인과 갈등인식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경로계수는 0.374이고 $p < 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결혼 후 직장생활이나 육아휴직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세대 간 갈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서, <가설 7>도 채택되었다.

여덟 번째, 정치적 요인이 세대 간 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로계수는 0.018로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상과 달리 정치적 요인은 갈등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8>은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직갈등 요인과 갈등인식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경로계수는 0.110이며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가설 9>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 내 갈등인식이 높아질수록 세대 간 갈등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상의 가설 검증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 7>와 같다.

〈표 7〉 가설검증결과 요약

구분	가설내용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R(t값)	검증결과
가설1	사회신뢰 ← 경제적 요인	0.131	0.142	0.062	2.290*	채택
가설2	사회신뢰 ← 사회적 요인	-0.004	-0.008	0.100	-0.080	기각
가설3	사회신뢰 ← 정치적 요인	0.452	0.580	0.078	7.450***	채택
가설4	사회신뢰 ← 조직갈등 요인	-0.052	-0.042	0.039	-1.079	기각
가설5	갈등인식 ← 사회신뢰	-0.183	-0.154	0.047	-3.275**	채택
가설6	갈등인식 ← 경제적 요인	0.117	0.106	0.050	2.133*	채택
가설7	갈등인식 ← 사회적 요인	0.374	0.645	0.109	5.939***	채택
가설8	갈등인식 ← 정치적 요인	0.018	0.019	0.059	0.323	기각
가설9	갈등인식 ← 조직갈등 요인	0.110	0.075	0.031	2.400*	채택

* $p < 0.05$, ** $p < 0.01$, *** $p < 0.001$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변수에 대한 직·간접 효과를 분해한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효과의 분해

구분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치적 요인	조직갈등 요인	사회신뢰	
갈등인식	직접효과	0.117	0.374	0.018	0.110	-0.183
	간접효과	-0.024*	0.001	-0.083**	0.010	-
	총효과	0.093	0.374	-0.065	0.120	-0.183

* $p < 0.05$, ** $p < 0.01$, *** $p < 0.001$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사회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000회의 부트스트래핑 검증

(Bias Corrected Bootstrapping)을 시행하였다. 경제적 요인의 경우 신뢰구간 95%에서 $-0.600 \sim 0.002$ 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나타냈으며, 정치적 요인도 $-0.161 \sim -0.034$ 의 상한값과 하한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 두 변수의 경우 모두 상한값과 하한값에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나머지 사회적 요인과 조직갈등 요인의 경우 상한값과 하한값이 0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신뢰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요인의 경우 사회신뢰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적 요인은 사회신뢰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과거에 비해 우리사회가 다원화되고 민주화됨에 따라 사회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회갈등의 한 유형인 세대 간 갈등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경제적 요인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실제로 세대 간 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세대 간 갈등인식은 줄어들 수 있다는 가정으로 사회신뢰 요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매개변수인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질 경우, 우리사회의 신뢰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사회신뢰와 관련하여 사회적 요인과 조직갈등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사회신뢰의 경우 우리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질수록 세대 간 갈등인식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세대 간 갈등인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조직갈등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갈등 요인의 경우 사회신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세대 간 갈등인식에서는 조직갈등인식이 높아질수록 세대 간 갈등인식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사회의 세대 간 갈등인식을 불식시키고, 세대 간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경제적 요인의 경우 사회신뢰와 세대 간 갈등인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특히 청년세대의 경제적 확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청년 지원정책을 다원화하여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센터를 설치하여 청년들에게 주거, 취업, 생활과 관련한 상담과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관련 공공기관을 연결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홍보 부

족 등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청년지원을 위한 정책 홍보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우리사회는 이념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이러한 이념갈등·정치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투쟁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생하기 위한 정치권 및 정당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을 대상으로 세대 간 갈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조사하였다. 제주도의 사례를 전국적인 사례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나 향후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전체 국민과 제주도민들의 갈등인식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05). 한국의 이념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4(2): 193-218.
- 고태경·임현지·왕정하·최다운·이철승. (2021). 세대 문화와 기업 문화, 기업 내 세대 간 문화적 차이에 따른 일 만족도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9(2): 39-96.
- 곽윤경. (2020). 사회적 자본 실태 진단과 사회통합. 「보건복지포럼」, 280: 18-33.
- 곽창규. (2019). 사회적 신뢰형성 메커니즘에서 나타나는 개인적·제도적 편차 연구: 다이내믹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한 사회적 신뢰 지표 탐색. 「한국행정논집」, 31(4): 671-690.
- 김금미·안상수. (2008). 남성의 성평등 의식 예언을 위한 모형 통합: 사회정체성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33-155.
- 김강민. (2011). 신뢰가 갈등의 민주주의 측면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식조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7(3): 1-25.
- 김나연. (2020). 공정성 인식이 주관적 계층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2018 서울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15(1): 1-27.
- 김대중·오영석·왕서정. (2018).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활용한 공공갈등 유형별 원인과 대응방안의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4): 23-57.
- 김명자·이정우·계선자·박미석·송말희·김경아·박수선·유을용·정진희. (2003).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를 위한 세대 간 이해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대한가정학회지」, 41(1): 59-76.
- 김상노·조광희. (2022).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 회계처리의 개선방안. 「정부회계연구」, 20(1): 111-144.
- 김정인.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규임용 공무원의 조기퇴직 관리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 20(1): 221-240.
- 김재신. (2012). 일반화된 타자, 정부,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가 공공갈등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

- 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16.
- 김태준. (2004). 교육현장에서 세대간 갈등과 해소 구조의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 57-80.
- 김호균. (2007). 조직공정성인식, 조직신뢰, 조직시민행동간 영향관계분석. 「한국행정학보」, 41(2): 69-94.
- 김희삼. (2015). 세대 간 갈등의 분석과 상생 방안의 모색. KDI 연구보고서.
- 남궁은하. (2021). 세대갈등 및 새애주기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연령·계층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21(3): 55-69.
- 노대명·김상호·우해봉·최영준·김예슬·Goishi Norimichi. (2020). 각국의 고령화 단계별 대응방안 연구 및 향후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환희·송정민·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세대 효과: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선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12(1): 113-140.
- 박경숙·서이종·장세훈. (2012). 세대 간 소통 및 화합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연구보고서.
- 박길성. (2011).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한국사회」, 12(1): 3-25.
- 박길성. (2014). 『사회는 갈등을 만들고 갈등은 사회를 만든다』. 고려대학교출판부.
- 박병진. (2007). 신뢰형성에 있어 사회참여와 제도의 역할. 「한국사회학」, 41(3): 65-105.
- 박상필. (2000). 이익집단 갈등과 사회자본: 경실련의 한약분쟁 조정 사례연구. 「한국행정학보」, 34(2): 121-138.
- 박영균. (2009). 청소년과 부모 세대 간 문화 갈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청소년문화포럼」, 0(21): 110-137.
- 박재홍.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 박재홍. (2009). 세대명칭과 세대갈등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경제와사회」, 81: 10-34.
- 박재홍. (2010).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권력·이념·문화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75-99.
- 박중훈. (2013). 『지상 최대의 경제 사기극, 세대전쟁』. 21세기북스.
- 박희봉·이희창. (2009). 한국과 일본의 신뢰 특성 비교: 신뢰 유형별 특성 및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행정학보」, 43(4): 105-128.
- 서울경제신문. 2010.1.17. 「세대 간 ‘일자리 전쟁’ 시작됐다」/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1HW86HMDBZ>
- 서울경제신문. 2023.3.12. 「(만파식적) 레가툼 변영지수」/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29MZZEB7DD>
- 설선미. (2022). 조직 갈등 인식의 세대 차 연구: - X, Y 세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학보」, 19(2): 27-48.

- 신경아·최윤희. (2020). 혐로(嫌老)사회: 뉴스 댓글에 나타난 노인인식과 공공PR의 과제. 「광고학 연구」, 31(6): 93-128.
- 심준섭·김지수. (2011). 갈등연구에서 프레임 분석의 적용가능성: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5(3): 29-64.
- 엄묘섭. (2007). 시민사회의 문화와 사회적 신뢰. 「문화와 사회」. 3, 7-45.
- 여성가족부. (2022). 홈페이지 알림·소식/출처: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0092(2023.11.4. 인출).
- 오미옥. (2020). 사회갈등이 협력적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22(3): 47-66.
- 오민지. (2022). 사회갈등인식이 국가 경제전망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2(4): 63~89.
- 윤민재·임정재. (2022). 한국사회의 불평등 인식과 공정성: 연령대별·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12(1): 40-80.
- 원영희·한정란. (2019). 세대갈등과 세대통합에 대한 고찰: 노년교육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노년교육연구」, 5(1): 63-85.
- 은석·안승재·함선유·백의. (2018). 세대 차이인가, 계층 차이인가?: 한국과 일본의 가족가치관 차이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8(1): 41-7.
- 이삼식·권순원·석재은·정순돌·김연선·안혜수. (2018). 「고령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방향 설정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 이상구·문국경. (2022). 도시재생 지역주민협의체의 역량에 관한 인식이 도시재생사업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신뢰와 네트워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6(2): 51-68.
- 이수연·최인희·김인순·조은미. (2010). 「남녀 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영라·이숙중. (2018). 사회갈등이 시민의 주장형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와 사회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6(2): 159-190.
- 이재경. (2018). 세대갈등의 양상, 원인, 대안 모색. 「경제와 사회」. 118.
- 이재경·장지연. (2015). 한국의 세대불평등과 세대정치: 일자리영역에서 나타나는 정책주도 불평등을 중심으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8: 15-44.
- 이재혁. (2006). 신뢰와 시민사회 한미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40(5), 61-98.
- 이지은. (2020). 지역사회 위험인식이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신뢰의 매개효과 분석.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0(4): 27-63.
- 임동진·윤수재. (2016). 갈등원인이 갈등수준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쟁점요인과 매개요인의 효과

- 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4(2): 117-148.
- 임동진·박관태. (2017).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갈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 신뢰와 소통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6(4): 87-123.
- 장용석·정장훈·조문석. (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갈등: 사회적 자본의 다면적 속성에 대한 재조명. 「조사연구」, 10(2): 45-69.
- 정선영·김은이·문성진. (2015). 개인의 가치관이 정치적 신뢰 수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신뢰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1(2): 105-128.
- 정순돌·정주희·김미리. (2016). 연령주의와 연령통합이 세대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령집단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4): 5-24.
- 정순돌·이아영·박민선. (2022). 사기업 직장인들의 조직 내 세대갈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동시장에서의 세대연대 모색. 「노인복지연구」, 77(4): 15-44.
- 조현정. (2015). 30대 기혼남성의 일·가정 양립과 성 주류화 실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5년 12월: 269-270.
- 추병완. (2011). 접촉 가설에 근거한 반편견 교수 방법. 「윤리연구」, 81: 239-262.
- 최동주·이묘숙. (2016). 지역사회 의 범위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인신뢰 매개효과 분석.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1): 627-637.
- 최영미. (2021). 이주민의 지역사회 갈등경험과 사회적 거리: 사회적 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45(3): 131-154.
- 최흥석·홍성만·주경일. (2003). 사회적 갈등의 근거이론적 이해: 댐건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7(4): 169-192.
- 통계개발원. (2022). 한국의 사회동향 2022.
- 통계개발원. (2023). 국가지표체계-사회 갈등 인식[데이터파일].
- 한성열. (2005). 한국 사회의 신뢰와 불신에 관한 심리학 연구의 과제 및 제언.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0): 163-174.
- 한정란. (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5-127.
- 홍상우·김동욱·김화연. (2023). 청년의 정치효능감이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공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33(1): 1-32.
- 황선재. (2022).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형평. 「사회과학연구」, 33(2): 149-172.
- 황아란. (2009). 정치세대와 이념성향: 민주화 성취 세대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5(2).
- 황창호·이남국. (2018). 시민의 활동과 지역사회의 신뢰형성에 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28(3): 63-86.
- KOSIS. (2023). 노동-경제활동인구조사-실업률·연령별비경제활동인구. 출처: <https://kosis.kr/>

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179S&vw_cd=MT_ZTITLE&list_id=B14&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3.10.18. 인출).

- Allen, J. C. (2001).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The development of social capital within an interactional field. *Journal of Socio-Economics*, 30: 119-120.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MA: Perseus Books.
- Amir, Y. (1976). The role of intergroup contact in the change of prejudice and ethnic relations. In P. A. Katz (ed.), *Towards the elimination of racism* (pp. 245-308), New York: Pergamon.
- Blind, P. K. (2007). Building trust in government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view of literature and emerging issues. In 7th Global Forum on Reinventing Government Building Trust in Government. Vienna: UNDESA, 26-29.
- Brehm, J. & Rahn, W.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888-1023.
- Brewer, M. B. (1991). The social self: On being the same and different at the same tim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7(5): 475-482.
- Brown, L. D. & Ashman, D. (1996). Participation, social capital, and intersectoral problem solving: African and Asian cases. *World Development*, 24: 1467-1479.
- Campbell, D. T. (1965). *Ethnocentric and other altruistic motives*.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Cummings, L. L., & Bromiley, P. (1996). The Organizational Trust Inventory (OTI): Development and validation. In R. M. Kramer & T. R. Tyler (Eds.), *Trust in organizations. Frontiers of theory and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Dixon, J., Durrheim, K., & Tredoux, C. G. (2005). Beyond the optimal contact strategy: A reality check for the contact hypothesis. *American Psychologist*, 60: 697-711.
- Dovidio, J. F. (2001). On the nature of contemporary prejudice: The third wave. *Journal of Social Issues*, 57(4): 829-849.
- Doz, Y., & Hamel, G. (1998). *Alliance Advantage*.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Fukuyama, F. (1995). Social Capital and the Global Economy. *Foreign Affairs*. 74(5): 89-103.
- Hogg, M. A. (2003). Intergroup relations. In J. Delamater(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New York: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479-501.
- Hogg, M. A. (2013). Intergroup relations. In J. DeLamater & A. Ward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2nd ed.*, New York: Springer: 599-658

- Hogg, M. A., Abrams, D., Otten, S. & Hinkle, S. (2004). The Social Identity Perspective: Intergroup Relations, Self-conception, and Small Groups. *Small Group Research*, 35(3): 246-276.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ackson, J. W. (1993). Realistic group conflict theory: A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literature. *Psychological Record*, 43(3): 395-415.
- Job, J. (2005). How is trust in government created? It begins at home, but ends in the parliament. *Australian Review of Public Affairs*, 6(1): 1-23.
- Krishna, A. (2000). Creating and harnessing social capital.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In P. Dasgupta and I. Serageldin (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pp. 71-93).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Kumar, N. (1996). The Power of Trust in Manufacturer-Retailer Relationships. *Harvard Business Review*, 74(6): 92-106.
- Larson, D. W. (1997). Trust and missed opportunit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al Psychology*, 18: 701-734.
- Levi, M. (1996). Social and unsocial capital: A review essay of Robert Putnam's *Making Democracy Work*. *Politics & Society*, 24(1): 45-55.
- Mayer, R. C., Davis, J. H., & S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709-734.
- Misztal, B. (2013). *Trust in modern societies: The search for the bases of social order*. John Wiley & Sons.
- Myers, D. G. (2005). *Social psychology*, 8th ed. Boston: McGraw Hill.
- Newton, K., & Zmerli, S. (2011). Three forms of trust and their association.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3(2): 169-200
- Nunkoo, R., & Ramkissoon, H. (2012). Power, trust, social exchange and community support. *Annals of Tourism Research*, 39(2): 997-1023.
- Gilbert Abcarian and Monte Palmer. (1974). *Society in Conflict: An Introduction to Social Science*. San Francisco: Canfield Press.
- Gauntlett, D. (2002). *Media, gender and Identity*, London: Routledge.
- Parkhe, A. (1998). Building Trust in International Alliances. *Journal of World Business*, 33(4): 417-437.
- Pinquart, M., Wenzel, S., & Soresen, S. (2000). Changes in Attitudes among Children and Elderly Adults in Intergenerational Group Work. *Educational Gerontology*, 26: 523-540

- Pruitt, D. G., & Carnevale, P. J. (1993). *Negotiation in social conflict*. UK: Open University Press
- Pruitt, D., & Olczak, P. (1995). *Beyond Hope: Approaches to Resolving Seemingly Intractable Conflict*. In Bunker, B. B., & Rubin, J. Z. (Eds.). *Conflict, Cooperation, and Justice: Essays Inspired by the Work of Morton Deutsch*. San Francisco: Jossey-Bass.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thbart, M., & Hallmark, W. (1988). Ingroup outgroup differences in the perceived efficacy of coercion and conciliation in resolving social confli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248-257
- Rothstein, B. (2011). *The quality of government: Corruption, social trust, and inequality in international perspectiv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thstein, B., & Eek, D. (2009). Political corruption and social trust: An experimental approach. *Rationality and society*, 21(1): 81-112.
- Stephan, W. G., & Finlay, K. (1999). The role of empathy in improving intergroup rel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55(4): 729-743.
- Stephan, W. G., & Stephan, C. W. (1985). Intergroup anxiety. *Journal of Social Issues*, 41(3): 157-175.
- Stephan, W. G., & Stephan, C. W. (1996). Predicting prejudic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0(3-4): 409-426.
- Tam, R., Hewstone, M., Kenworthy, J., & Cairns, E. (2009). Intergroup trust in North Ireland.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 45-59.
- Tajfel, H. (1974).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behavior. *Social Science Information*, 13(2): 65-93.
- Tajfel, H. (1978). Interindividual and intergroup behaviour. In H. Tajfel (ed.), *Differentiation between groups: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27-60), London: Academic Press.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G. Austin & S. Worche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33- 47), Monterey, CA: Brooks/Cole
- Turner, J. C. (1975). Social comparison and social identity: Some prospects for intergroup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5: 5-34.
- Uslaner, E. M., & Conley, R. S. (2003). Civic engagement and particularized trust: The ties that

bind people to their ethnic communities. *American Politics Research*, 31(4): 331-360.

Zak, P. J., & Knack, S. (2001). Trust and growth. *The economic journal*, 111(470): 295-321.

접수일(2024년 07월 19일)

수정일(2024년 08월 01일)

게재확정일(2024년 08월 05일)

<국문초록>

사회신뢰가 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세대 간 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독립변수로는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정치적 요인 및 조직갈등 요인을 설정하였으며, 매개변수로 사회신뢰 요인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제주도민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여 5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매개변수인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질 경우, 우리사회의 신뢰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매개변수인 사회신뢰의 경우 우리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질수록 세대 간 갈등인식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대 간 갈등인식을 줄이고 세대 간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 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 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지원 정책을 다양화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센터를 설치하여 주거, 취업, 생활과 관련된 상담과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청년 지원 정책의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이념과 정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치권과 정당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제어: 세대, 세대 간 갈등, 갈등인식, 사회신뢰, 경제적 지원

양영권(梁榮權: 제1저자)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교육행정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최근 연구 논문은, 협상론적 시각에서 본 교육정책 갈등사례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7년~2020년 사례를 중심으로(2023)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갈등관리, 협상론 등이다(gachiga@korea.kr).

김주경(金周經: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및 사회과학연구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공공갈등관리, 행정철학, 복지행정, 과학기술정책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미국동포의 귀환이민 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2024), 세대 간 갈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2023), Study on the policy literacy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ing nuclear and new-renewable energy(2022) 등이 있다(agelead@jejunu.ac.kr).